

## “아산재단의 사업에 참여한 것이 나의 자부심”



올해 정년을 맞은 김인숙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아산장학생으로 시작해 사회복지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아산재단과의 인연을 이어왔다.

사회복지를 전공한 꿈 많은 20대 청년이 아산재단의 장학금 덕분에 대학을 무사히 졸업했다. 매마침 대학원생도 아산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에 대학원에 진학했고, 1985년부터 대학 강단에 섰다. 그리고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젊은 시절 맺은 아산재단과의 인연을 계속 이어나갔다. 2011년 아산 상 심사위원을 시작으로 아산재단이 추진하는 사회복지사업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12년간 아산재단의 사업에 힘을 보태는 든든한 지원군이 됐다.

올해 8월 정년을 앞둔 김인숙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38년 6개월의 교수 생활을 돌아보면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며 “그중에서도 아산재단의 사업에 참

여했다는 것에 개인적으로 자부심을 느낀다”며 소회를 밝혔다.

### 아산장학생에서 사회복지 자문위원으로

김인숙 교수는 성심여대 사회사업학과 3학년이던 1979년 아산장학생으로 선정됐다. 가정형편이 어려워져 학교를 그만둘까 고민했던 때였다. 대학과 대학원까지 무사히 마친 그는 1995년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부임해 지금까지 학생들을 가르쳐 왔다. “꼭 사회복지학을 하겠다, 교수가 되겠다”는 소망이나 의지가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공부를 하고 싶어서 아산장학금을 받기 위해 노력했고, 하다보니까 재미도 있고 학생들을 만나며 소통하는 것이 즐거워서 지금까지 온



아산재단 연구총서 『사회복지연구에서 질적연구의 방법과 분석』을 비롯한 김인숙 교수의 저서들.



2023년 사회복지 협력기관 워크숍에서 지원기관과 함께한 김인숙 교수(왼쪽 다섯번째).

거죠. 사회복지학과가 각광받고, 복지 영역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역동적인 시기라서 배우는 것도 많았고요.”


김인숙 교수와 아산재단의 인연은 2011년 다시 시작됐다.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아산상 심사위원에 위촉된 것이다. 김인숙 교수는 ‘동시대에 이렇게 훌륭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구나’하며 많은 자극을 받았다. 그중에서도 노숙인 진료에 헌신한 최영아 의사(2021년 의료봉사상 수상)의 말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흔한 질문으로 ‘가장 어려웠던 일이 뭐냐’고 물었는데, 최영아 의사가 ‘노숙인 때문에 어려운 것은 없었지만 내가 노숙인들에게 익숙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웠다’고 대답하셨어요. 보통은 사람들 때문에, 또는 지원이 없어서 힘들었다고 말할텐데 이런 대답은 생각도 못했어요. 그 마음을 이해하니 눈물이 핑 돌더군요.”

### 더 많은 사회복지 모델 개발에 힘써주길

2015년에는 사회복지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어 아산재단의 사회복지 지원사업을 도왔다. 김인숙 교수는 “현장에서 사회복지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확산하는 역할이 아산재단의 핵심 역할”이라고 말한다. “이론이나 책에서는 배울 수 없는 사회복지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뛰는 경험을 많이 했어요. 교수는 해외에서 가져온 이론을 말하지만, 사회복지사들은 우리나라 현실에서 실제 적용할 수

있는 수많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이론적 토대를 만들어주고, 평가방법 등 어려워하는 부분을 도와주면 우리 사회에 딱 맞는 실질적인 사회복지 모델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김인숙 교수는 기억에 남는 사례로 아산재단의 지원을 받은 청주정신건강센터의 ‘오픈 다이얼로그’ 프로그램을 꼽는다. 정신장애 당사자들이 약물이나 격리치료 대신 대화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정체성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오픈 다이얼로그’ 프로그램은 대안적 정신건강 프로그램으로 인정받아 복지현장 뿐만 아니라 대학에서도 적용되고 있다.

“아산재단은 사회복지분야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역사와 규모 면에서도 그렇지만,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요. 단순히 사업비를 지원하고 서류로 평가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간담회를 꾸준히 운영하고, 사회복지사와 긴밀히 소통하며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다양하게 지원하는 것이 아산재단의 최고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라며 김인숙 교수는 “앞으로도 아산재단은 국가의 도움이 닿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를 지원하고, 새로운 지원모델을 만드는 일에 더욱 힘써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글 편집부